

“평택대학교 교육공동체는 투명하여 안정적인 ‘공영형사립대’를 추진합니다.”

평택대학교 구성원 ·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는 교육공동체는 ‘공영형사립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비손실’ ‘무자격’ ‘무능’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이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1. ‘교비손실’ ‘무자격’ ‘무능’ 실태와 이계안 이사장-이동현 총장 관계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이계안 씨는 이사장으로 취임 직후, 기부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전대미문의 ‘상근이사 겸직’하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 정관에도 없고 이사회 결의도 없는 꿈수 월급이라,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리 구재단 시절 기획처장이었던 이동현 현 총장은 이계안 씨의 이사 선임에 관계했습니다. 이계안 씨는 이사장이 되자 이동현 씨를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계안 이사장이 상근이사 겸직으로 지출되는 월급을 이동현 총장은 묵인했고, 이동현 총장이 대학자산의 활용 노력도 없이 매각을 이사회에 제안하자 이계안 이사장은 묵인했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동현 총장의 임용과 승진에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리 구재단은 이동현 씨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주요보직을 맡겼습니다. 이계안-이동현 체제 출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타 대학 따라 하기에 급급합니다. 비리 구재단의 ‘교비손실’ ‘무자격’ ‘무능’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더 하다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 ‘학사혼란’ 실태와 이계안 이사장-이동현 총장의 무능한 학사행정

동문회장의 사실 확인에 따르면, 이동현 총장이 교무위원 교수들과 자칭 학부모 대표를 대동하고 1명만 참석한 학생대표에게 선재원 교수 개인신상에 대

해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선 교수는 학생대표를 만나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칭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모임 결성과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의 징계권 남용 불감증이 심각한 가운데, 선 교수가 3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계안 이사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또 다시 행정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차 행정소송 총비용이 1억 원이었고, 이번에는 1심만 1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1억 원이면 평택대 전체학과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1명씩 더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신 이사회회의록에 따르면, 이계안 이사장은 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한 교수 4명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국립대에는 없고 사립대에만 주어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권한을 남용하여 막대한 교비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이계안 이사장-이동현 총장의 무능으로 지연되는 ‘공영형사립대’

선재원 교수가 연구책임자였던 공영형사립대 도입실증 연구결과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평택대는 연간 10억 원, 총 30억 원을 지원받는 사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동현 현 총장은 비리 구재단의 충실한 보직자로 공영형사립대 도입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 교수와 공헌했던 연구진을 배제하고 자신이 사학혁신지원사업 단장이 되었습니다.

사학혁신지원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도입실증 연구결과를 답습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은 국립대 의무사항인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며,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겠다고 교육부에는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공영형사립대 도입실증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택대와 주변 대학의 권한과 특성을 살리며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가능한 학점교류를 확대하고 구성원 간의 교류를 증대하며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택대와 주변 대학의 입학정원을 합하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와 비슷한 규모가 됩니다. 사립대는 인천대 모델로, 국립대는 서울대 모델로 장기간에 걸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4. 평택대 교육공동체의 투명 · 안정 ‘공영형사립대’ 실현 전망

평택대 구성원 ·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는 교육공동체는 비리 구제단과 유사한 파행적 이사회 운영 상황을 예상하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영형사립대’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평택대는 시가 1300억 원 광화문 토지를 비롯한 막대한 자산과 높은 입학률로 자생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신뢰 받는 총장이 선출된다면, 평택대는 지역과 상생하며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학 설립자인 피어선 박사가 추구했던 창학정신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구성원과 지역의 커다란 불신 대상인 이계안 이사장-이동현 총장 체제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학발전을 위한 활동을 게을리 하고, 교비를 손실시키며, 자산을 활용할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매각에만 몰두하는 이사장과 총장이 구성원과 지역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선재원 교수 개인 사안은 법적 절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계안 이사장이 인용하는 판결문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선 교수는 월급을 쪼개 법률비용을 지불하고, 이계안 이사장은 학생 위한 기금으로 법률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계안 이사장은 이미 1억 원을 지불했고, 또다시 시작한 재판에서 1심 변호사 비용만 1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투고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택대 교육공동체는 투명하여 안정적인 대학운영을 반드시 실현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미래의 디딤돌을 구축하겠습니다.

2024년 9월 9일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집행위원 일동





